

THE MUSSAR – PARASHAT DEVARIM

Deuteronomy 1:1-3:22, Isaiah 1:1-27, Matthew 24:1-22

Mussar — The Discipline of Endurance

1. Do not confuse sacred structures with

spiritual security. A Temple can fall. Institutions can change. Familiar systems can disappear. Faith must ultimately rest in YHWH rather than in the structures through which we have known Him.

2. Do not allow fear to interpret reality. The spies saw giants and forgot YHWH. Yehoshua warns of terrifying events but says not to be alarmed. Fear sees the enemy and asks, “How can we survive?” Faith remembers YHWH and asks, “How shall we remain faithful?”

3. Guard love when lawlessness increases. The world’s darkness must not become the heart’s darkness. The cruelty of others must not determine the temperature of our love.

4. Let worship become righteousness. Yishayahu teaches that prayer, sacrifice, and assembly must produce justice, mercy, repentance, and care for the vulnerable.

5. Remember previous victories. Moshe strengthened Joshua by telling him to remember what his own eyes had already seen. When facing future uncertainty, remember the faithfulness of YHWH already revealed in the past.

6. Endurance is active faithfulness. To endure does not mean merely surviving until trouble ends. It means continuing to trust, obey, love,

1. 거룩한 구조물을 영적 안전과 혼동하지 말라. 성전도 무너질 수 있다. 제도도 변할 수 있다. 익숙한 체계도 사라질 수 있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야훼를 알아 온 구조물이 아니라 야훼 자신에게 두어야 한다.

2. 두려움이 현실을 해석하게 하지 말라. 정탐꾼들은 거인들을 보고 야훼를 잊었다. 예호수아께서는 두려운 사건들을 경고하시면서도 놀라지 말라고 하신다. 두려움은 원수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고 묻지만, 믿음은 야훼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남을 것인가?”라고 묻는다.

3. 불법이 증가할 때 사랑을 지키라. 세상의 어둠이 마음의 어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의 잔인함이 우리의 사랑의 온도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예배가 의로 나타나게 하라. 이사야는 기도와 제사와 집회가 정의와 긍휼과 회개와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으로 나타나야 함을 가르친다.

5. 이전의 승리를 기억하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의 눈으로 이미 본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를 강하게 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마주할 때 과거에 이미 나타난 야훼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6. 인내는 능동적인 신실함이다. 견딘다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어려움이

discern, and remain faithful while the trouble continues.

계속되는 동안에도 계속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분별하며, 신실하게 남는 것이다.

Core Mussar

Do not ask only whether the world around you is shaking. Ask whether your faith, love, and obedience remain steady while it shakes. Yisrael stood before giants. Yishayahu stood before a corrupted city. The disciples stood before a Temple destined to fall. In every case, the true battlefield was ultimately the human heart.

The one who endures to the end is the one who refuses to let fear destroy faith, lawlessness destroy obedience, deception destroy truth, persecution destroy loyalty, or hatred destroy love.

When the stones fall, let faith remain. When lawlessness increases, let love remain. When deception multiplies, let truth remain. When the wilderness stretches before you, remember: YHWH still goes before His people.

네 주변의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지만 묻지 말라. 세상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너의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를 물으라.

이스라엘은 거인들 앞에 섰고, 이사야는 부패한 성읍 앞에 섰으며, 제자들은 무너질 운명의 성전 앞에 섰다. 모든 경우에 진정한 전쟁터는 결국 인간의 마음이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두려움이 믿음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고, 불법이 순종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며, 미혹이 진리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고, 박해가 충성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며, 미움이 사랑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는 자이다.

돌들이 무너질 때 믿음은 남게 하라. 불법이 증가할 때 사랑은 남게 하라. 미혹이 많아질 때 진리는 남게 하라. 광야가 네 앞에 펼쳐질 때 기억하라. 야훼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백성 앞서 가신다.